

ACTS NEWS

<http://www.acts.ac.kr>

2014. 12. Vol.42

총장 메시지

SPECIAL REPORT

MISSION REPORT

AIGS Diary

ACTS NEWS

Summary in English

ACTS 후원자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대학평가원
Korean University Accreditation Institute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사회봉사



대학재정 및 경영



교육시설

ACTS

우리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한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전체 6개 영역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아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세아연안산학대학교

C O N T E N T S

총장 메시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SPECIAL REPORT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MISSION REPORT

ACTS 선교대회
ACTS 선교대회의 의의
선교 불모지를 향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첫 걸음

AIGS Diary

KESA Homecoming Day
국제교육원(AIGS) 사은회
AIGS 포럼
메디페어(방문 진료의 날)
양평군 다문화 가족 축제 참석
독감예방접종
인도네시아에서 온 Nancy Patricia Dinar 이야기!

ACTS NEWS

뉴스 / 교직원 동정 / 신간도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CTS업무 협약 체결
ACTS 축선단, 전국 신학교 축구대회 준우승
강신원 이사, 본교에 도서 기증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체험 프로그램 실시
본교 연구교수, 제2회 러시아장로교총회 총무 피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CTS Festival〉 개최
도서관 정보이용교육 실시
추수감사예배
ACTS학생들, 광야교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제공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회 양평군 평생학습축제 참가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문화선교회, ACTS에서 말씀깃발전 개최
ACTS, 신망원과 다문화가족센터 방문
성탄트리 점등
ACTS, 예비 선교사에게 후원금 전달

Summary in English

후원자 명단

발행인 김영욱

발행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획처(Tel 031-770-7802)

디자인 정디자인(02-2285-0916)

인쇄 동화인쇄(02-3158-3521)

신선한 뉴스와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jay10@acts.ac.kr)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총장 메시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ACTS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Dear ACTS family and
co-workers in Chris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Isaiah 60:1)”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ACTS 양평 캠퍼스는 형형색색 가을 단풍의 계절을 지나 포근한 첫 눈이 내려 겨울의 다가섬을 알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흰 눈과 같이 우리 영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온전히 덮여져 모든 허물과 죄악이 씻김 받아 눈과 같이 희어지길 소망합니다.

2014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올 해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현재 약 1,400명의 국내학생뿐만 아니라 67명의 외국인학생들이 수학하고 있고, 1974년 개교 이후 480여명의 외국인 졸업생들이 자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TS 선교대학원 내 33여개국 선교연구원을 운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도록 후원자 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ACTS International Center를 건립하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한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의 전체 6개 영역 모두 ‘충족’ 판정을 받아 ‘평가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독교학교 연맹으로부터 교사양성 공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ACTS가 교육기관으로서 대내 · 외 적인 위치를 견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姑이영덕 박사 후손들의 교육연구기금 기부, 본교 이한영 교수 모친의 토지 기증을 비롯한 많은 후원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ACTS 위에 베풀어 주신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역을 부탁 드립니다. ACTS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기쁜 성탄과 복된 새해에도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Hallelujah! Greetings in Christ Jesus. ACTS saw autumn colors off Yangpyeong Campus but already received winter greetings with downy, first snow. I hope that the gracious blood of Christ Jesus may cover our souls of wickedness and transgression as the white snow covers all over the world.

As the year 2014 is drawing to a close, I look back upon what God has done to us and my heart is too full in a thousand words and emotions. This is because our faithful God made us fruitful this year.

ACTS has 1,500 students enrolled, including 76 foreigners i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Since 1974 the international program has granted 480 degrees to foreign students who are now working hard in their own countries for the gospel. ACTS Graduate School of Mission also has 30 mission institutions, each one with patrons for preaching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world. It is our prayer that ACTS build International Center accommodating up to 500 students.

I am so pleased to hear a good news from Center for University Accreditation of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CTS received ‘Accreditation’ with ‘satisfaction’ in all six areas of accrediting criteria: “Mission and Plan of Development, Education, Personnel, Facilities, Financing and Management, and Social Service” ACTS is officially recognized as an institute to train teachers from International Union of Christian Schools. ACTS received gifts and funds from numerous supporters, including research fund in education from the children of the late Dr. Lee Young Duk and a real estate from the mother of Prof. Lee Han Young. I confess all these are possible by the grace of God

As God has entrusted ACTS the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so we move on: “Rise and Shine Bright!” Thank you for your prayer and support this year. And I ask you to continue for years to come. May the grace of Christ of Jesus be filled in this season of Christmas and New Year. Immanuel to all ACTS family and friends!

주후 2014년 9월 양평 집무실에서 총장 김 영 욱 올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2014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심사에서 6개로 이루어진 평가영역 전체를 충족하여 ‘평가인증’을 획득하였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며 인증을 통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 인증 획득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보증과 국제적 통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아세아복음화와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영역별 총평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01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는 '기독교 복음정신'과 '아세아 복음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학과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 선교 지향적 글로벌 지도자 육성을 핵심되는 비전으로 삼아 2020년까지 교육, 연구, 국제화와 인프라의 영역에서 발전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교육

02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는 '기독교 복음정신'과 '아세아 복음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각 학과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다. 학칙과 학사운영관리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학사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그 규정들을 개정하고 있다. 2013년 교육만족도 조사 이후, 낮은 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개선을 시도하였고 2014년 교육만족도 조사에는 2013년 대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었다.

대학구성원

03

전임교수 확보율,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교수의 교육과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회나 교내외 연수 참여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연구년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선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으며,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대학 자체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지성과 함께 인성과 사명감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시설

04

대학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교육기본시설 부문에서 우리 대학은 인증에 필요한 기준값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도서관입비 지출은 평가인증에 위한 기준값을 충족하고 있음은 물론 도서관입비 지출액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도서관을 위한 전자자료 및 전자저널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꾸준한 학술정보시스템의 첨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재정 및 경영

05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ACTS 2020 장단기발전계획서>를 바탕으로 재정운영 및 재정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결정은 민주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대학 경영에 대한 내부 및 외부 감사 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

사회봉사

06

신앙과 지성으로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 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인재상 구현을 위해 사회봉사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체계를 구성하여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책임성 있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사회봉사정책 추진전략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의 다양화 및 체계화, 사회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봉사네트워크 구축, 현장학습(service learning) 사제동행 봉사프로그램 강화, 다문화/타문화 봉사 특성화의 5가지 영역에서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36회 ACTS 선교대회 개최

가슴 뛰는 40년, 함께 뛰는 40년(40 years of mission, 40 years of co-mission)!



ACTS는 개교 40년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위임(the Great Commission)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결 같이 선교의 길을 걸어왔고 사명 완수를 위하여 매년 ACTS 선교대회 개최하고 있다. 금년 제36회 ACTS 선교대회는 '가슴 뛰는 40년, 함께 뛰는 40년(40 years of mission, 40 years of co-mission)!'이라는 주제로 10월 23일에 개최되었다. 1부 선교헌신예배와 2부 각국선교협의회 세미나로 진행된 선교대회는 동문, 후원자, ACTS 구성원이 참석하여 ACTS의 선교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1부 선교헌신예배는 Howard Wright(영국 선한목자교회/담임목사)가 '예수님의 선교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조기연 교수(ACTS북한연구원 원장)가 기도를, 축사는 노규석 목사(온누리교회 해외선교부/ACTS 아랍문화연구원 원장)와 ACTS 연구전담교수가 해외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또한 본교 기독교교육학과 이○○학생이 T국의 장기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식을 가졌다. 2부 순서에는 아랍문화연구원, 인도네시아선교연구원, 아프리카선교연구원, 중국선교연구원, 베트남선교연구원, 일본선교연구원, 남미선교연구원, 태국선교연구원, 미얀마선교연구원, 인도선교연구원, 북한연구원, 오아시스연구원, 파키스탄선교연구원 등이 세미나를 열어 기도와 교제를 가졌다. 또한 한국초대교회 사진전과 본교 재학생들의 단기선교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외부 선교단체들이 참석하여 선교대회 자리를 빛내주었다. ACTS 선교대회가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민족을 위한 복음 불씨가 되길 기대해 본다.

선교 불모지를 향한 용기와 결단, 그리고... 첫 걸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학년 이○○ 학생.



“결단이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 두발로 문 앞에 서봐야 그 문이 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열리면 가는거고, 아니면 다른 문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선교를 결단한다는것..

누군가는 내게 말한다.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어려운 결단이 아니었다. 18살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려왔던 시간들에 대한 열매였다. 선교를 결단하기 며칠 전, 도서관 옥상에 한시간 정도 서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빨리 졸업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보니 졸업 후에 저를 보내실 것 같은데, 그 길이 열렸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

요.'라고.. 왜 그렇게 확신에 찬 기도가 나왔는지는 며칠 후에야 알 수 있었다. T국으로의 부르심을 향한 계획을 듣게 되었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결단이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먼 발치에 서서 그저 저 자동문이 열릴지 열리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내 두발로 문 앞에 서봐야 그 문이 열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열리면 가는거고, 아니면 다른 문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면 되는 것이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섰고, 문이 열렸으므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한다. 용기마저 나의 것이

ACTS선교의
회고와 전망

ACTS 선교대회의 의의

ACTS 선교대회는 본교 개교 역사 및 설립목적과 함께하여 왔다. ACTS(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동 때부터 '신학과 선교'라는 두 가지 기반 위에 아세아의 복음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1974년에 선교교육기관으로 세워졌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의 선교는 초기단계였다. 그런 상황 가운데 ACTS는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선교교육기관으로 세워졌으며 선교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 각국 선교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이 선교연구원을 중심으로 'ACTS 선교대회'를 매회 개최하게 되었

다. 무엇보다 일반화되어 있던 서구 선교 방향에, ACTS는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과 함께 현지 아시아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양방향 선교 방향을 제시 하였는데, 당시에는 혁신적인 선교 패러다임이었다.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선교전략의 방법으로 각 교회가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요원들을 양성함으로써 선교의 열정을 각 교인들에게 불어넣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역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결과 현재 선교양상은 선교대상지 국가에 있는 성도들과 친교를 먼저 나누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들에게 전해 주고 자국 복음화에 그들이 헌신케 하여 한국의 교회 안에 먼저 '기도공동체'가 형성되어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기도선교'를 구성케 하였다. ACTS의 선교 패러다임을 구체화

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 ACTS는 매회 선교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선교대회에는 ACTS의 구성원 뿐아니라 교계 내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후원자를 초청하여 세계선교를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연구 활동을 하였다. 특히 ACTS 외국인학생들의 자국복음화를 위하여 학생들과의 교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 교회, 선교단체들과도 동역체제를 이루도록 힘써왔다. '아세아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라는 선교적 사명은 곧 ACTS와 선교대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ACTS가 존속하는 한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선교의 흐름을 볼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기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ACTS의 선교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선교대회는 이 막중한 선교적 책임 정신 하에 세계의 상황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 발전할 것이다.



1992년 선교대학원 기공식



1998년 선교대회



2000년 선교대회

아니므로 매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나의 헌신 같지만 결국은 나는 그저 주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ACTS에 들어오기전, 저의 기도제목은, '하나님 저를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보내주세요'였어요. 그런데, 지난 4년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의 가장 낮고 어두운 부분'을 보게 하였고, 그곳을 먼저 밝히시며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오셨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준비되어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후에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깊어지고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 인격의 성숙과 준비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깊이 고민하는 만큼 깊이 찾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내가 하나님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진정한 겸손을 알게되는 성공의 시간일 뿐이에요. 설령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과 지혜를 주시며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

루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매 순간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나라를 향한 비전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되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비전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ACTS 후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AIGS(국제교육원) News

KESA Homecoming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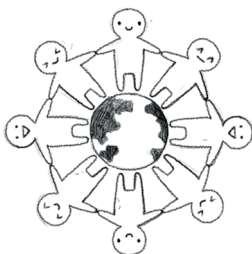
11월 10일(월) 학생회관 ACTS CAFE에서 제2회 Home coming day 및 제1회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Kesa(영어과정 M.Div. 한국학생 모임)에서 주최한 이번 모임에는 약 20명의 졸업생 및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졸업생인 윤석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였고 예배 후 정기총회가 진행되는 순서였다. 차기 동문회장으로는 이봉현 목사가 선출되었으며, 본교 교수이자 동문으로 그동안 Kesa를 섬겨왔던 안효영 교수에게는 모두의 정성이 담긴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국제교육원(AIGS) 사은회

Professor's Appreciation Party가 11월 13일(목) 오후6시에 학생회관 3층 ACTS CAFE에서 주최되었다. 외국인 학생들의 정성 담긴 초대카드에 응답하듯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약 10명의 교수들이 참석하여 감동의 시간을 함께 공유했다. 각 교수들의 소감과 더불어 학생들의 손편지 및 특송이 이어지며 스승과 제자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IGS 포럼

매 학기 2회 열리는 AIGS 포럼이 이번 가을 학기에도 10월 22일, 11월 5일에 각각 열렸다. 13번째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영국에 '선한 목자 교회'의 하워드 라이트 목사가 '목회 기본 요소'에 대해 강의하였고, 14회 포럼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위클리프 칼리지'의 글렌 테일러 교수가 참석하여 '시편에서 기독론'에 관한 주석 작업을 전했다.



AIGS 13회 포럼



AIGS 14회 포럼



양평군 다문화 가족 축제



독감예방접종

메디페어(방문 진료의 날)

분당 '우리교회' 의료선교팀이 지난 11월 16일 양평 캠퍼스를 방문했다. 본교의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 특히 AIGS 학생을 위한 무료 진료를 목적으로 매 학기 방문 중인 의료선교팀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 선교부장 '성기양 박사'의 인솔 하에 16명의 지원팀이 방문하여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직접 약을 조제해 주었다. 구체적으로 내과, 치과, 초음파, 한방 침술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등 외국인학생의 한국적응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양평군 다문화 가족 축제 참석

지난 10월 25일(토)의 화창한 가을, 양평전통 시장에서 양평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양평 종합사회 복지관이 주최한 다문화 가족 축제에 국제교육원 학생5명이 참석하여 양평주민과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특별히 우크라이나 학생이 행사에 참여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에 관심을 보였고 나이지리아 학생도 다른 나라의 의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얀마 학생들은 여러 다른 다문화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참석한 학생들 모두가 현장에 설치된 체험부스를 둘러보며 다문화 축제를 한껏 즐기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독감예방접종

지난 10월 28일, 기흥성모병원의 이경희 원장 부부는 국제교육원 학생들의 건강한 겨울을 대비하여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봉사 해 주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매년 국제교육원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있다. 양평의 추운 겨울에 익숙하지 않은 아프리카 학생들과 동남아 학생들은 이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표시 하는 인사를 한국말로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1999년 제가 Jakarta에 위치한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을 때, ACTS에 관련된 브로셔를 보게 되었습니다. 브로셔에는 ACTS Campus의 사계절 사진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브로셔를 통해 저는 이미 ACTS와 사랑에 빠져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꼭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아 ACTS에 입학 지원을 보냈지만 학교와 답장을 주고받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ACTS의 입학 정책에 나와있는 최저 나이보다 두 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입학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에 대해 잊어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가운데 성경의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를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라는 이사야 55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몇 일 후 저는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 여름의 중반,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첫 주 저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의 자신감 또한 무너졌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지만, 저는 신학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불충분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교회가 보낸 목사님을 도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운 목사님의 목사님의 이름은 페르난도였습니다. 주중에는 M.Div. 과정을 공부하며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페르난도 목사님의 사역을 돕기 위



해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그일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 예배때 예배시간보다 정말 늦게 도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행히도 7명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시간에 아무도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아 정말 조용했습니다. 예배 후 페르난도 목사님이 예배에 참석한 7명 모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인도네시아에서 도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낼 곳과 직업을 찾을 동안 목사님께서 그의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하루나 이틀 후에 직업을 잡게 되면, 다음 주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페르난도 목사님과 함께 머물렀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숙소를 제공받기 위해 위해 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주에는 20명이, 그 다음주에는 30명이 되었고, 한 해의 마지막 주에는 그 수가 50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더욱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한지 5년쯤 지났을 때, 한국의 이민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내의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간 후에 다시 입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교회에는 몇 명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역의 환경이 더욱 척박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거두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갈급상태를 경험했었습니다.

오랜시간이 흐른후에 저는 ACTS에 Th.M. 실천신학 과정으로 다시 한 번 입학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M.Div.를 졸업한지 11년이나 지난 시기였습니다. 마침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제 갈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Nancy는 현재 졸업 후 자카르타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후배양성을 위해 매년 \$6,000를 후원하고 있다.

I was studying at one of the Seminaries in Jakarta around the year of 1999 when I found a brochure about ACTS. In it, there were pictures portraying the four seasons of the campus. My heart was beating fast because at the very first-look, I fell in love with the school and dreamed to study there.

Without wasting time, I sent my application, but it took several months to correspond back and forth. And I was two years younger than the school admission policy', I might not be qualified, I thought. But while I was about to forget getting admissions into school, God showed this verse in my prayer, 'You will go out in joy and be led forth in peace; the mountains and hills will burst into song before you, and all the trees of the field will clap their hands' (Isaiah 55:12). After few days of prayer I received the letter of admission from school.

I arrived in the mid of summer 2000. However, the first week of study I was so discouraged. My self-confidence collapsed after realizing that I lack on many things. I thought I'm not capable of studying theology; the school must have been so gracious to me; my English wasn't even sufficient that after speaking two or three sentences I had nothing more to say. There was a tension with my feeling of inadequacy and determination to fulfill God's calling.

At the same time, my church in Indonesia has planned to start an Indonesian ministry in Korea. I'm helping a young pastor whom they would send to start that ministry. His's name is Fernando. After hectic weekdays of M.Div. study, I had to run for weekend ministry in Seoul. It's quite refreshing, though. There were only

7 people attending it. The service was cold and quiet. No one could sing or pray. Later, Fernando told me, they're all non-Christian. They just arrived from Indonesia, looking for jobs and had no place to live so he offered his place for them. But he said "if they get jobs in one or two days, I'm not sure if we'll have service next week"

But Eventually, God was working. More people attended. Most of them stayed with Fernando, that's why we were able to continue having services. Almost no one was Christian, but they attended church anyway just to have a place to sleep at night. That's why the next week we had around 20 people, and next 30, and by the end of the year it reached to 50 members.

Usually revival is not last forever; soon the church will face the real challenges and grow in maturity. After 5 years of harvesting souls, the Korea Immigration Law issued a regulation that forced all foreign workers to go back and make a reentry from their home country. Month after month, and year after year, so our church left with few people. The soil was getting harder and harder, and the harvest was scarce. We were experiencing spiritual drought.

At long last I got my second admission to ACTS for Th.M. in Practical Theology. It was after 11 years of my M.Div. graduation. Finally my long desire to study again is fulfilled.

After graduation Nancy, with her husband, is faithfully working on a church planting project in Jakarta. She is also supporting AIGS education with a fund, \$6,000 every yea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CTS업무 협약 체결



지난 9월 2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CTS기독교TV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CTS기독교TV 회장과 이사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ACTS · CTS 업무 협약식(M.O.U.)이 이루어졌고 향후 인터넷(실습) 협력, 강의협력, APP 제작 및 방송 편성 협력, 신학생 모집 광고 등과 관련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기관의 협력을 통한 비전이 기대된다.

ACTS 축선단, 전국 신학교 축구대회 준우승



지난 9월 29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할렐루야 전국 신학교 축구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협성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와 한조로 편성된 우리 대학은 첫 경기 협성대학교를 상대로 1대1로 무승부, 두 번째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상대로 3대1 승리, 마지막 예선에서는 성서대학교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종합 1승 2무로 준결승을 확정지었다. 전열을 가다듬고 임한 준결승 상대는 목원대학교, 결승진출을 앞두고 있었기에 경기는 매우 치열했고 0대0 팽팽한 공방전을 치르던 후반전, 4학년 조균동 선수가 상대와 볼경합중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선교학과 윤택진 선수가 안정적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1대0으로 승리하며 결

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전 상대는 많은 대회 우승을 경험한 총신대학교, 전반전 상대 공격수의 단독 드리블 돌파에 수비가 흔들리며 한골을 실점했으나, 후반전 경기 종료를 2분여 남기고 상대의 반칙으로 얻은 프리킥을 선교학과 4학년 한재운 선수가 골로 연결하며 1대1로 경기를 마쳤다. 대회 규정 상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다소 긴장을 한 탓인지 우리 대학 선수들은 실축을 했다. 승부차기 결과 3대1로 아쉬운 준우승을 하였지만 이는 2011년 이후 우리 대학의 최고의 성적이었으며 더불어 선교학과 한재운 선수가 대회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ACTS축선단에 아쉬움보다는 격려의 박수가 더 많았던 뜻깊은 대회였다.

강신원 이사, 본교에 도서 기증

지난 10월, 본교 이사인 강신원 목사는 약 4,000권 분량의 도서를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된 이 도서들은 겨울방학 중 도서관에 비치되어 학습 및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체험 프로그램 실시



10월 21일 화요일, ACTS 본관 1층에서는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봄으로서 장애인들의 현실을 체험하거나 퀴즈를 풀어보고 소감문을 작성하는 등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참석한 한 학생은 '잠깐이나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소중한 능력을 얼마나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는지 성찰해 보는 시간이었다'라며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교 연구교수, 제2회 러시아장로교 총회 총무 피선



지난 10월, 제2회 러시아장로교총회(Генеральная Ассамблея Пресвитерианских Церквей России)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엡 2:14)의 주제로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장로교회당(담임목사 정운)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소속 4개의 지역 노회(모스크바, 시베리아, 연해주, 사할린)에서 18명의 총대(목사 15명, 장로 3명)가 파송되어 2박3일(7일~9일)간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개회 예배로 시작된 총회는 노회 보고, 특강, 저녁 집회, 임원 선거 및 총회 보고 그리고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폐회예배와 성찬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첫날 <기독교 교육의 미래>에 대한 박원호 목사(주님의 교회)의 강연과 저녁 집회가 있었고, 둘째 날 <선교의 본질>에 대한 서정운 박사의 특강과 교회 성도들을 초청한 수요집회가 있었다. 이어진 회의에서 총회장 이 블라디미르 산보노비치(Ливладимир Самбонович) 목사 등 4명의 러시아 현지인 임원이 선출되고, 안순철 선교사(ACTS 연구교수)가 상임총무로 2년 간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였다. 현재 총회 내에는 4개 지역 노회, 59개 지역 교회, 52명의 목사, 5명의 장로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내에서 개혁주의적인 건강한 교단을 표방하는 본 총회는 연방 정부에 종교법인등록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교육부 인가 교육 기관으로서의 신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 한국의 개혁주의 교단과 신학교들과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앞서 2012년 10월 모스크바 러시아 장로교창립총회에 참석한 ACTS의 김영욱 총장은 <새 시대의 목회 비전>이라는 제목의 특강과 함께 상호 협력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CTS Festival> 개최

지난 10월 21일~22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대표 축제인 'ACTS Festival'이 있었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이젠 ACTS 만의 축제>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먹을거리와 활동들로 축제에 열기를 더하였다. 특히 연극 동아리 <EXTRA>는 한 학기 동안 준비한 뮤지컬 연극을 올렸고, 워십댄스 동아리 <Plug>는 길거리 공연을, 찬양 동아리 <Paw>는 라이브 음악을 선보이는 등 각 동아리마다 개성과 열정을 더하며 축제에 참여하였다. 특히 축제의 첫날 저녁에는 학생들의 음악적 실력을 뽐내는 <Song Festival>이 열렸었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관심과 열기 속에서 한현지(선교학과) 학생과, 박찬영(선교영어학과) 학생이 우승을 하였다. 게스트로는 CCM 그룹(Deliever)가 순서를 이어갔으며, 모든 참여한 사람들은 음악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하나 되는 축제를 이루어갔다. 더하여 22일(수) 저녁에는 'ACTS God Talent'라는 주제로 학생 개개인의 장기를 뽐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저마다 춤, 노래, 개인기 등 자신의 장기를 뽐내며, 이날 게스트로는 워십댄스그룹인 'PK'가 공연을 하였다. 이번 축제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은 서로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연결 고리'를 형성하였고, 중간고사 이후에 치뤄진 축제라 그런지 학생들의 저마다 그간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편, 축제에 참여했던 박채은(선교학과 4학년) 학생은 '지난 축제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가는 것이 좋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도서관 정보이용교육 실시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자료검색 및 이용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학기마다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2학기에도 다락방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정보의 이해, 소장자료 검색법, 미소장자료 검색법, 전자정보(WEB DB)이용법 등이었다. 지난 학기보다 참여율이 높아졌지만 수업시간 및 공간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학생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교육참여자들은 소장자료검색법이 가장 유용한 정보였다고 답했으며, WEB DB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도서관에서는 DBPIA, KISS, e-article 세 가지를 신규 서비스하고 있으며, RISS를 통해서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추수감사예배



지난 11월 13일(목), 후원자와 동문, 그리고 ACTS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수감사예배가 거행되었다. 이번 감사예배에서는 열린 교회의 김남준 목사가 '한 알의 밀이 떨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개교 40년간 신실하게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ACTS 전 구성원이 감사와 찬양을 올린 귀중한 시간이었다.

ACTS학생들, 광야교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11월 19일(수)에 본교 학생들과 사회봉사센터 구성원들은 영등포 광야교회에 방문하여 노숙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성숙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배웠던 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봉사는 봉사자 자신들에게도 생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재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제공

ACTS 정보지원팀은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에서 사용 중인 데스크탑 컴퓨터와 개인 휴대용 노트북, 태블릿기기 및 스마트폰 등 총 5대의 장비에 최신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365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학교 이메일 계정(@acts.university)을 발급, 사진이나 문서 등을 저장/공유할 수 있는 25GB의 클라우드 저장공간 제공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ACTS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MS오피스365 신청' 메뉴를 참고하기 바란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회 양평군 평생학습축제 참가



지난 11월 21일(금) ~ 22일(토)에 양평군청 주관으로 '제1회 양평군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축제'가 양평 군민회관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연 3,000여명이 참석한 양평군 평생학습축제는 양평군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것을 축하하고, 아울러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 축제를 계기로 양평군내의 많은 학습기관들이 함께 교류하며 어우러져 홍보와 나눔의 장을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 이번 축제가 첫 회이니 만큼,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도 참가하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은 학점은행제(학위과정)에는 신학과 사회복지 과정이 있고, 평생교육 전문가과정에는 가정사역전문연구, 기독교노인상담연구, 기독교사회복지, 목회연구원(계절학기), 바리스타카운슬러, 상담임상, 성경연구, 음악콘서바토리, 전도전문연구, 전문인선교연구, 치유상담과정 등 다양한 과정

이 개설되어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개강하며, 2015학년도는 3월 9일(월) 개강예정으로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평생교육원 교학팀 (031-770-7822~7823)이나 평생교육원 홈페이지(www.acts.ac.kr/li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문화선교회, ACTS에서 말씀깃발전 개최



푸르렀던 나무의 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날,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문화선교회'는 종교개혁일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인의 합력을 위하여 청현재이 캘리그래피 깃발전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2014년 4월 '부활의 은혜, 그 말씀'이라는 주제로 총신대에서 제1회 말씀깃발전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비롯하여 7개 대학과 함께 두 번째 말씀깃발전을 시행한 것이다. 임동규 대표는 '기독교 문화는 혼자자 아닌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모든 신학생들이 교단과 교파를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기도로 준비하며 협력할 때에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물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올해 말씀깃발전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협력하여 기도로 준비할 때에 대한민국

국 곳곳에 말씀 깃발이 휘날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ACTS, 신망원과 다문화가족센터 방문



금년 추수감사예배를 맞이하여 ACTS는 동아리 '아이사랑' 학생들과 함께 양평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와 신망원(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려운 형편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결손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었다. 또한 양평의 다문화가정을 섬기기 위해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과일과 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물을 건네받는 어려운 사람들 만큼이나 주는 사람의 행복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편 동아리 '아이사랑'은 신망원을 지난 20여년간 매주 월요일마다 방문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성탄트리 점등



올해로 개교40주년을 맞이한 우리대학교는 11월 25일 오후 5시 30분 선교대학원 1층 로비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을 시행하였다. 김준수 기획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점등식은 총장 및 교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다 같이 합창 한 후 '아기예수님의 탄생과 2014년 2학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하자'라는 김영옥 총장의 설교로 마무리 되었다. 다가오는 성탄절, 그리고 새

해를 맞이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앞날이 반짝반짝 빛나던 크리스마스 트리 이상으로 빛나길 기대한다.

ACTS, 예비 선교사에게 후원금 전달

12월 8일(월), 우리 대학은 첫 걸음을 준비하는 이00학생과 유00학생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본 후원금은 지난 선교대회 시 동문 선교사를 위해 모금한 것이다. 먼 나라로 떠나는 두 학생을 위해 김영욱 총장은 해외 유학시절 당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격려했다. 아세아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미래는 밝다.

신간도서 안내



성경해석학

저 자 : 게르하르트 마이어 지음
(장해경, 송다니엘 옮김)
발행일 : 2014년 10월 6일
펴낸곳 : 영음사

왜 이 시대에 마이어 박사의 성경해석학이 절실히 필요한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 '의심'과 '비평'이 아닌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고 하는 자라는 여기서 '역사적'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해석의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개혁과 전통주의 신학 서론

저 자 : 한병수 지음
발행일 : 2014년 6월 1일
펴낸곳 : 부흥과개혁사

먼저 1부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한국 수용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진단할 것이다. 그리고 2부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16~17세기 개혁과 전통주의 신학이 어떻게 수용되고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고 3부에서 6부까지는 개혁과 전통주의 신학의 정의, 신학의 다양한 연계성등을 다룰 것이다.



종교개혁과 스콜라주의

저 자 : 한병수 지음
발행일 : 2014년 4월 25일
펴낸곳 : 부흥과개혁사

본서에 수록된 논문들은 모두 소위 '연속성 가설' 즉 한편으로 중세 스콜라주의와 종교개혁 사이에 연속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종교개혁과 개혁과 스콜라주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가설에 대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논쟁을 거론한다.

총장동정

9월 16일	한기총 대표회장 이취임식 축하
9월 16일	ACTS · 천사병원 M.O.U.
9월 26일	CTS기독교TV 직원예배 설교 및 ACTS · CTS M.O.U.
10월 6일	백석대학교 신대원 특강
11월 10일	정도량목사 출판기념예배 축하
11월 28일	대학총장 조찬기도회
11월 29일	한국복음주의신학협의회 임원회의

교수동정

김재윤 교수

10월 11일	개혁신학회 논문 발표
10월 25일 ~ 26일	김포 주님의 보배 교회 종교개혁기념 특강
10월 31일	경동지방 SFC 종교개혁 기념 특강
11월 23일	잠실중앙교회 청년대학부 집회인도

허 주 교수

9월 18일, 10월 23일 11월 20일, 12월 11일	엑츠 태국선교연구원 - 영락교회 소망회 성경공부 인도
9월 14일 ~ 11월 23일	은혜교회(서울 신대방동) 성경대학 매 주일 10회 인도 (주제 : '우리 시대의 우상들')
10월 11일	한국신약학회 14회 콜로키움 참석
10월 25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64차 정기대회 신약분과에서 논문 발표

권오윤 교수

10월 15일 ~ 23일	미국 코너스톤 교회(이종용 목사) 초청으로 'Connection 2014' 행사 참석
10월 25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4차 정기논문발표회 참석
11월 29일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 제25차 학술논문발표회 참석
9월 1일 ~ 11월 30일	노원성도교회(서울, 조성웅전도사)에서 주일예배 설교인도(월 2회)

한상화 교수

11월 15일	제29차 한국 복음주의 조직신학회 정기 총회에서 회장 피선
---------	----------------------------------

김영희 교수

4월 19일	삼호침례교회 부모교육특강
6월 30일	인천보호관찰소 청소년 상담실 12년 봉사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8월 11일 ~ 13일	ATA conference 참석
11월 9일	수유리 반동제일교회 상담특강
11월 28일	열린부모교육학회 주제발표

박응규 교수

9월 27일	'제자, 육한흠' 시사회 참석
10월 5일	사향교회 주일설교
10월 6일	동평양노회 초청 특강
11월 22일	한국장로회신학회 참석 및 논평

Summary in English

- ‘Accreditation’ with ‘Satisfaction’
- MS Office365 Service
- Workshop for Using Library
- Library Book Gift from Board Member
- ACTS Fallfest
- Thanksgiving Service
- ACTS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Students Help Serving Free Meal
- AIGS Forums
- MediFare

‘Accreditation’ with ‘Satisfaction’

ACTS received a good news, 2014 ‘Accreditation’ with ‘satisfaction’ in all areas of criteria: “Mission and Plan of Development, Education, Personnel, Facilities, Financing and Management, and Social Service.” The accreditation is an act of public recognition to a university through rigorous evaluation by an agent, Center for University Accreditation under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designated by Education Ministry of Korean Government. Now ACTS bolsters the quality of education in Korea as well as in the world. ACTS will be on the move toward missional goal for training Asian and global leadership.

MS Office365 Service

ACTS Information Technology Team that supports computer and internet service launched MS Office365 Service from November 2014. It allows students, faculty and staffs to install MS Office365 in their desktop and laptop computers, tablets, and smart phones. Major benefits for the new service are to provide 25 GB cloud storage and allow to share data using new university domain email (@acts.university).

Workshop for Using Library

ACTS Library offered a workshop for library users in the Upper Room in October 2014. This biannual event was designed to improve access to library materials, especially, for understanding information, searching materials owned and/or not-owned by ACTS, and the use of web database, etc.

Library Book Gift from Board Member

ACTS is thankful for library gifts from a board member, Rev. Kang Shin Won, the pastor emeritus of No Ryang Jin Church in Seoul, who donated 4,000 volumes of his personal library in October 2014.

ACTS Fallfest

ACTS campus can not go without Fall Fest, October 21 and 22, the annual after-mid-term event. This year ACTS Student Body organized the festival with anticipation of student participation. A musical by the drama team, <EXTRA>, a street performance the worship dance team, <Plug>, and a live music on the street by the praise team, <Paw>, along with food market made the campus buzzed with excitement and enthusiasm.

Thanksgiving Service

ACTS together with supporters and alumni celebrated November 13, 2014 for Thanksgiving in the ACTS auditorium. Rev. Kim Nam Joon, the pastor of Yullin Church in Ansan, Kyeonggi preached, “When A Seed Fell on Soil.” Especially, all ACTS community enjoyed a special Thanksgiving meal that the Yullin Church provided.

ACTS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October 21, ACTS organized an awareness day of experiencing disabilities in the Main Hall lobby. Students wrote a short essay, or entered in quiz contest to better understand the people of disabilities.

Students Help Serving Free Meal

ACTS students helped serve free meal to the homeless and seniors without family at a church in YoungDeungPo, Seoul. On November 19, 2014, ACTS Support Center for Public Service organized a team of students for free meal distribution at Wilderness Church whose reputed service is widely praised for feeding about 300 people daily.

AIGS Forums

Two AIGS Forums were held with distinguished speakers from England and Canada. The 13th Forum was on October 22. Rev. Howard Wright, Pastor of Church of the Good Shepherd in the UK, gave a lecture, “Essential Elements for Pastoral Care.” The 14th Forum was on November 5. Dr. James Glen Taylor, Professor of Wycliffe College, University of Toronto, presented how the Psalter is read christologically, “Toward a Concise Christological Commentary on the Psalms”

MediFare

A Medical Mission team from Bundang Woori Church visited ACTS for free medical service for AIGS students on Nov. 16. Dr. Sung Gi Yang, the mission team leader, took 16 members. This is the third visit for AIGS students who received diagnosis and treatments including internal medicine, dental service, ultra sound, acupuncture, and prescription medications for free.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원과 학생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학년도 대학 편입학 접수기간 2014. 12. 29(월)~2015. 1. 2(금)

홈페이지 www.acts.ac.kr/admission **대학 편입학 문의** 031 - 770 - 7838~9

2015학년도 대학원 전기 3차 접수기간 2015. 1. 19(월) ~ 21(수)

홈페이지 www.acts.ac.kr/grad **대학원 입학 문의** 031 - 770 - 7794~6